

불교의 탄생과 가르침

교과서를 읽다가 막히는 질문 10가지

이 단원의 질문

불교는 고대 인도에서 등장했어요. 당시 브라만 중심의 신분 질서에 불만을 가진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가운데 불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교는 출신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행과 깨달음으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Q01	불교의 시작과 석가모니
Q02	브라만과 브라만교 그리고 카스트제
Q03	철제 농기구와 사회 변화
Q04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의 불교 지지
Q05	불교가 비판한 것과 중시한 것
Q06	윤회에서 벗어나려 한 이유와 해탈
Q07	욕심과 집착 그리고 중도
Q08	자비와 평등의 뜻
Q09	차별 비판과 제도 폐지의 차이
Q10	불교의 호응과 전파

답

불교는 기원전 6~5세기 무렵 고대 인도 북부의 갠지스강 유역에서 활동한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었어요.

갠지스강은 인도 북부를 흐르는 큰 강이고, 유역은 강 주변에서 그 강으로 물이 모여드는 지역이에요.

석가모니는 고타마 싯다르타를 높여 부르는 이름으로,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이에요. 석가족은 고대 인도 북부에서 작은 나라를 이루고 살던 집단이에요. 성자는 깊은 깨달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뜻해요. ‘부처’는 깨달은 이를 뜻하며, 석가모니를 부처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불교 전통에서는 싯다르타가 석가족의 왕자, 곧 크샤트리아 출신이었다고 전해요. 풍족하게 자랐지만,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보고 깊이 고민했다고 해요. 그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고 가정생활을 떠나 수행했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져요. 크샤트리아는 정치와 군사를 맡던 신분이고, 수행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다듬는 실천이에요.

당시 갠지스강 유역에서는 도시와 나라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활발하게 논의했어요. 불교도 이런 질문과 사회 변화 속에서 등장했어요.

핵심 연결

석가모니는 인간이 겪는 늙음·병·죽음 등의 괴로움과 그 해결 방법을 탐구했다고 전해져요.

답

브라만은 제사와 종교 의식을 맡던 신분 집단이고, 브라만교는 이들의 권위와 제사를 중시한 고대 인도의 종교 전통이에요. 카스트제는 출생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고 직업과 결혼 등에 제한을 받던 인도의 신분 제도예요. 브라만교는 브라만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신분 질서를 종교의 가르침으로 뒷받침했어요.

여기서 제사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정해진 의식을 행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의식을 통해 풍요와 안녕 등을 기원했어요. 브라만은 제사 방법과 종교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존경과 대우를 받았어요.

신분은 어느 집단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적 지위를 말해요. 신분 서열은 ‘누가 더 높은 신분인가’를 정한 순서예요. 브라만 중심의 신분 질서에서는 아래 표의 위쪽부터 높은 신분으로 보았어요.

신분 서열	말도록 여겨진 대표적인 일
1 브라만	제사와 종교 의식
2 크샤트리아	정치와 군사
3 바이샤	농업과 목축, 상업 등 생산과 경제 활동
4 수드라	다른 신분 집단을 위한 노동과 봉사

이 네 구분을 ‘바르나’라고 해요. 브라만은 제사, 크샤트리아는 정치·군사, 바이샤는 생산·경제 활동, 수드라는 노동·봉사를 말도록 여겨졌어요. 실제 사회에는 지역과 직업에 따른 더 많은 집단이 있었고, 직업도 이 표와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교과서 그림에 ‘불가촉천민’이 나오기도 해요. 이들은 다섯 번째 바르나가 아니라, 네 바르나 밖으로 배제되어 심한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브라만교가 이 신분 질서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불교가 브라만의 권위를 비판한 것은 태어난 신분에 따른 차별을 비판한 것과 연결돼요.

핵심 연결

브라만교는 브라만의 권위와 출생에 따른 신분 질서를 종교적으로 뒷받침했어요. 이 때문에 브라만교의 권위와 카스트제의 신분 서열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Q03 불교를 배우는데 왜 철제 농기구와 도시 이야기가 나오나요?

답

철제 농기구의 보급은 농업과 교역, 도시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어요. 이 과정에서 힘이 커진 사람들이 브라만 중심의 신분 질서에 불만을 품은 것은 불교가 등장하고 호응을 얻은 배경의 하나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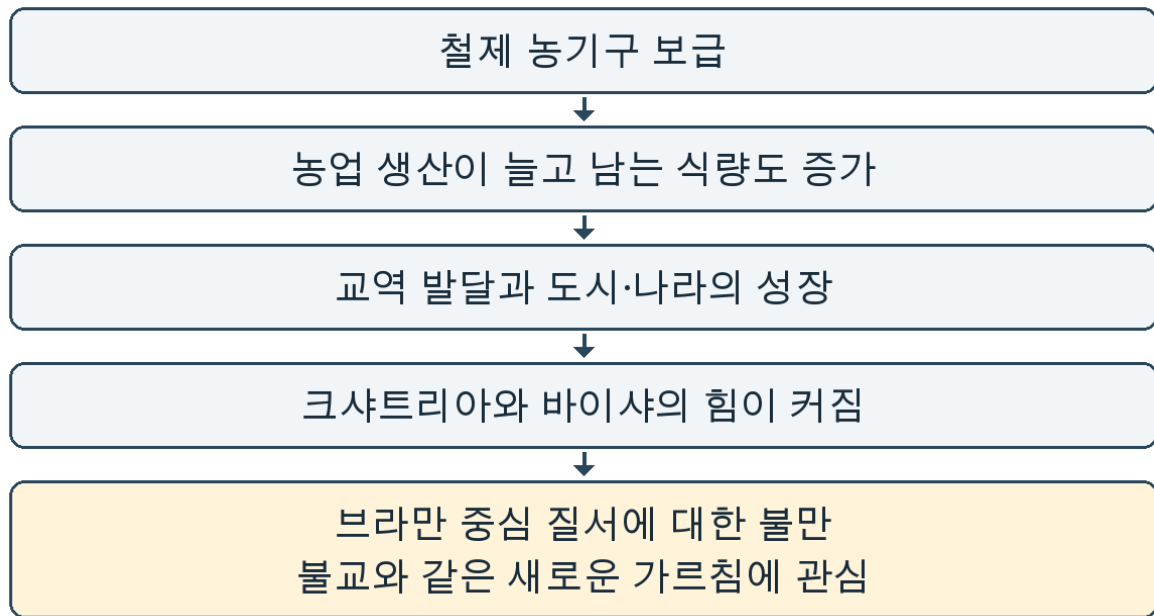
갠지스강 유역 등에서는 철제 농기구가 농업 생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먹고 남는 식량이 늘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먹고살 수 있고,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나 물건을 사고파는 상인으로 일할 수 있어요. 남는 곡식을 다른 물건과 바꾸는 일도 활발해질 수 있지요.



고대 인도의 농업과 교역을 그린 상상도예요. 왼쪽에서는 소 두 마리가 쇠 보습을 단 나무 쟁기를 끌어요. 보습은 쟁기 끝에서 땅을 파고 흙을 가르는 날이에요. 가운데 사람들은 거둔 곡식을 나르고, 오른쪽에서는 곡식과 토기를 바꾸고 있어요. 남는 곡식은 토기를 만드는 장인과 물건을 사고파는 상인의 생활을 뒷받침했어요.

교역이 발달하고 도시와 나라가 성장하면서 크샤트리야와 바이샤의 힘도 커졌어요. 그러나 브라만 중심의 신분 서열은 그대로였어요. 이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힘과 신분 서열 사이의 차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출신보다 행동과 수행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르침에 관심을 가졌어요.

불교의 성립에는 이러한 사회 변화와 함께 석가모니가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탐구한 과정도 작용했어요.



불교가 등장하고 호응을 얻은 여러 배경 가운데 하나를 간추린 흐름이에요.

핵심 연결

철기 보급에 따른 사회 변화는 신분 질서에 대한 불만과 불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었어요.

Q04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는 왜 불교를 지지했나요?

답

정치·군사와 경제에서 힘이 커졌지만, 브라만 중심의 신분 서열에서는 여전히 브라만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출신보다 수행과 행동을 중시한 불교를 지지했어요.

크샤트리아는 정치와 군사를 맡았어요. 바이샤는 농업·목축·상업 등을 맡은 집단으로, 특히 상인들은 교역의 발달과 함께 경제적 힘을 키웠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경제 활동에서 이들의 역할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브라만 중심의 신분 서열에서는 브라만이 첫 번째, 크샤트리아가 두 번째, 바이샤가 세 번째였어요. 자신의 실제 힘이 커져도 태어난 신분 때문에 서열은 브라만 아래에 머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생길 수 있었어요.

불교는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는지보다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고 수행하는지를 중시했어요. 이것이 브라만 중심 질서에 불만을 가진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불교를 지지한 이유예요. 다만 같은 신분의 모든 사람이 불교를 택한 것은 아니예요.

핵심 연결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의 불교 지지는 커진 힘과 그대로인 신분 서열 사이의 차이에 대한 불만과 연결돼요.

Q05 불교는 브라만교의 무엇을 비판했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았나요?

답

불교는 태어난 신분에 따른 차별과 브라만이 제사를 맡아 누리던 권위를 비판했어요. 그리고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스스로 수행하여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수행은 가르침에 따라 생각과 말, 행동을 다듬는 실천이에요. 불교에서는 남을 해치는 행동을 줄이고, 욕심과 집착을 살피며,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을 중시했어요.

해탈은 괴로움이 되풀이되는 굴레(벗어나기 어렵게 얽매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불교는 이 목표에 이를 때 중요한 것이 출생보다 각자의 수행과 깨달음이라고 보았어요. 어떤 신분에서 태어났든 바르게 실천하며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해탈의 뜻은 다음 질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이 가르침은 브라만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기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제사를 치르는 일보다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가 중요했어요.

핵심 연결

불교는 출신 신분보다 수행과 행동을 중시하며, 누구나 수행을 통해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답

불교에서는 다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도 되풀이된다고 보았어요. 욕심·미움·어리석음처럼 괴로움과 윤회를 이어지게 하는 번뇌를 없애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목표로 삼았어요.

윤회는 죽은 뒤 다시 태어나는 일이 반복된다고 보는 생각이에요. 다시 살 수 있다면 좋은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다시 태어나면 늙음·병·죽음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도 또 겪는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반복 자체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 했어요.

번뇌는 욕심·미움·어리석음처럼 마음을 흐리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작용을 말해요. 집착은 원하는 것을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이 괴로움과 윤회를 이어지게 한다고 설명해요.

수행과 깨달음으로 번뇌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에요. 번뇌가 꺼져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해요. 해탈은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열반은 번뇌가 사라진 상태라는 점을 나타내요. 더 좋은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윤회는 계속돼요. 해탈은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반복 자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윤회와 해탈은 당시 인도의 여러 사상가가 함께 고민하던 주제였어요. 브라만교 전통의 사상가들도 이 문제를 탐구했어요. 불교는 브라만의 제사와 출생에 따른 권위에 의지하기보다, 각자의 바른 행동과 수행으로 해탈에 이르는 길을 강조했어요.

핵심 연결

윤회는 다시 태어남의 반복이고, 불교가 목표로 삼은 해탈은 번뇌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답

불교는 괴로움을 낳는 욕심과 집착을 다스리며 바르게 노력하는 삶을 강조했어요. 공부나 일을 잘하려는 노력은 원하는 결과에 매달려 남을 해치는 태도와 달라요.

예를 들어, 모르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은 배우려는 노력이에요. 반드시 친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면 친구의 실패를 바라거나 부정행위를 한다면 결과에 대한 집착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돼요.

불교 전통에서는 왕자로 풍족하게 살던 싯다르타가 가정생활을 떠난 뒤 몸을 극도로 괴롭히는 고행을 했으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전해요. 그는 고행을 그만두고 명상하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찾았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찾은 수행의 길이 중도예요. 중도는 즐거움만 좇는 생활과 몸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고행, 이 두 극단을 피하는 길이에요. 바른 말과 행동, 꾸준한 노력으로 괴로움의 원인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중도는 무조건 두 의견의 중간을 고르라는 뜻은 아니예요.

핵심 연결

욕심을 버리라는 말은 괴로움을 낳는 집착을 다스리며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중도는 쾌락과 극단적 고행을 모두 피하는 수행의 길이에요.

Q08 자비와 평등은 그냥 착하게 살라는 말인가요?

답

착하게 사는 것과 통하지만, 그보다 뜻이 더 분명해요. 자비는 다른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괴로움을 덜어 주려는 마음이에요. 평등은 출신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본 생각과 연결돼요.

‘착하게’라는 말만 들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연할 수 있어요. 자비는 상대의 괴로움을 살피고 덜어 주려는 마음을 말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괴로움을 살피고 돌봐 주려는 태도가 한 예예요. 상대의 신분이 높든 낮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불교는 출신 신분으로 수행의 자격과 사람의 가치를 가르려는 생각을 비판했어요. 낮은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수행과 해탈의 길이 열려 있다고 보았지요. 이 가르침은 차별받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었어요.



불교의 가르침을 듣는 모습을 그린 상상도예요. 왼쪽 아래의 곡식 바구니와 농기구, 오른쪽 아래의 토기와 보따리는 농사와 물건을 만들고 나르는 일을 나타내요. 가르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같은 높이의 땅에 둘러앉아 있어요. 출신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행과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표현했어요.

자비와 평등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살피고 태어난 신분만으로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태도와 연결돼요. 가르침이 실제 사회를 얼마나 바꾸었는지는 다음 질문에서 살펴볼게요.

핵심 연결

자비는 다른 존재의 괴로움을 덜어 주려는 마음이고, 평등은 출신 신분에 관계없이 수행과 해탈의 길이 열려 있다는 생각이에요.

Q09 불교가 신분 차별을 비판했다면 카스트제는 바로 없어졌나요?

답

아니예요. 불교를 따르지 않고 브라만교 등 다른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불교 공동체의 가르침이 사회 전체의 결혼과 직업에 관한 규칙을 한꺼번에 바꾼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카스트제와 신분 차별은 계속되었어요.

불교에서는 가정생활을 떠나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예전 신분의 높고 낮음보다 같은 수행자라는 점을 중시했어요. 불교 경전은 이를 여러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예전의 강 이름을 잃고 바다의 일부가 되는 것에 비유했어요.

이것은 수행 공동체 안에서 출신 신분을 넘어 사람을 대하는 원칙이었어요. 그 밖의 사회에서는 불교와 브라만교 등 여러 종교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살았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불교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가족과 지역 사람들이 따르던 결혼과 직업의 규칙까지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니었어요.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일을 할지는 개인의 믿음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 집단의 관습에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행 공동체에서 출신 신분을 넘어서려는 가르침과, 일상생활에서 계속되는 신분 차별이 함께 존재할 수 있었어요.

핵심 연결

불교는 출신 신분에 따른 차별을 비판했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족과 지역 집단의 신분 규칙은 계속 작용했기 때문에 카스트제는 곧바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Q10 불교의 가르침은 왜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고 어떻게 퍼질 수 있었나요?

답

신분에 관계없이 수행으로 해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은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호응을 얻었어요. 승려들의 활동과 신자들의 후원, 교역로를 통한 이동이 불교의 전파를 도왔어요.

브라만 중심의 신분 질서에 불만을 가진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에게는 출신보다 수행을 중시하는 가르침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도 불교를 따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왕족과 부유한 상인, 노동하는 사람 등 여러 배경의 사람들이 불교를 지지했어요.

가정생활을 떠나 불교 수행과 종교 생활에 전념하는 것을 출가라고 해요. 이렇게 출가하여 불교 공동체에서 수행하는 사람을 승려라고 해요. 승려들이 생활하고 가르침을 전하려면 머물 곳과 먹을 것 등이 필요했어요. 신자들이 돈이나 물자를 보태는 후원은 이런 활동을 도왔어요.

교역로는 물건을 사고팔기 위해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에요. 상인과 승려가 이런 길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불교도 전해졌어요. 새로운 곳에 도착한 사람들의 설명과 활동을 통해 그 지역 사람들도 불교를 접할 수 있었어요.

인도에 세워진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왕은 불교를 장려했어요. 왕의 후원은 승려들의 활동과 불교의 전파를 도왔어요.

핵심 연결

불교의 전파에는 가르침에 대한 호응, 승려들의 활동, 신자들의 후원과 교역로가 함께 작용했어요.

확인 문제

선택 문제는 맞는 답을 하나만 고르세요.

확인 01 세 낱말의 뜻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에 쓰세요. 각 말은 한 번씩 쓰요.

보기 브라만 · 브라만교 · 카스트제

(가) 제사와 종교 의식을 맡던 신분 집단

(나) 브라만의 권위와 제사를 중시한 고대 인도의 종교 전통

(다) 출생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고 직업과 결혼 등에 제한을 받던 신분 제도

확인 02 남는 식량과 장인·상인의 활동

철제 농기구의 보급으로 먹고 남는 식량이 늘면, 장인과 상인의 활동에는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 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식량을 구할 수 없어서, 장인과 상인도 농사에만 힘써야 했어요.
- ② 농사를 짓지 않아도 식량을 구할 수 있어, 물건을 만들고 파는 일에 힘쓸 수 있었어요.
- ③ 남는 식량을 얻은 사람은 태어난 신분을 바꿀 수 있어, 장인과 상인도 브라만이 되었어요.
- ④ 남는 식량은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없어서, 장인과 상인은 물건을 주고받지 않게 되었어요.

답

확인 03 불교를 지지한 이유

본문에서 설명한 크샤트리야와 바이샤의 불교 지지 이유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가장 낮은 신분으로 가난하게 살아서, 불교가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 ② 서열이 브라만보다 낮아 불만이 있어, 불교가 자신들의 신분을 가장 높여 준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 ③ 태어난 신분에 불만이 있어서, 불교를 믿으면 다음 생에 브라만이 된다고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 ④ 힘에 비해 낮은 신분 서열에 불만이 있어, 출신보다 수행을 중시한 불교에 끌렸기 때문이에요.

답

확인 04 출신 신분과 해탈

불교가 가르친 수행과 해탈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태어난 신분과 관계없이 수행과 깨달음으로 해탈에 이를 수 있어요.
- ② 제사를 맡은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수행의 최종 목표예요.
- ③ 괴로움이 적은 높은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해탈이라고 해요.
- ④ 신분 차별을 비판하면 개인의 수행 없이도 누구나 해탈에 이르러요.

답

확인 05 윤회와 해탈을 이해하는 낱말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에 쓰세요. 각 말은 한 번씩 써요.

보기 해탈 · 번뇌 · 윤회

(가) 죽은 뒤 다시 태어나는 일이 반복된다고 보는 생각

(나) 욕심·미움·어리석음처럼 마음을 흐리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작용

(다) 수행과 깨달음으로 번뇌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확인 06 윤회에서 벗어나려 한 이유

불교에서는 왜 윤회에서 벗어나려 했나요? 다시 태어남과 괴로움을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쓰세요.

답

확인 07 중도의 뜻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서로 다른 두 의견이 있으면 언제나 정확히 중간 의견을 골라요.
- ② 몸을 괴롭히는 정도가 심할수록 바른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 ③ 쾌락과 극단적 고행을 피하며 바른 말과 행동으로 수행해요.
- ④ 욕심을 없애기 위해 공부나 일을 위한 노력도 모두 그만둬요.

답

확인 08 자비와 평등의 뜻 연결하기

본문에서 설명한 자비와 평등의 뜻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자비는 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려는 마음이고, 평등은 모두 브라만이 된다는 뜻이에요.
- ② 자비는 괴로움을 덜려는 마음이고, 평등은 신분에 따른 결혼 제한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 ③ 자비는 괴로움을 덜려는 마음이고, 평등은 누구나 수행으로 해탈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 ④ 자비는 번뇌가 사라진 상태이고, 평등은 누구나 수행으로 해탈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답

확인 09 차별 비판과 사회의 변화

불교가 등장한 뒤에도 카스트제와 신분 차별이 계속된 이유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불교가 신분 서열을 그대로 받아들여, 브라만의 제사 권위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 ② 수행 공동체에서도 출신 신분을 유지해, 브라만을 가장 높게 대했기 때문이에요.
- ③ 불교가 결혼에 관한 신분 규칙은 없었지만, 직업의 제한은 남겨 두었기 때문이에요.
- ④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가족과 지역의 신분 규칙도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답

확인 10 불교가 퍼질 수 있었던 까닭

불교의 전파를 도운 두 요소를 설명에 맞게 연결하세요.

(가) 신자들이 돈이나 물자를 보태어 승려들의 생활과 활동을 도왔어요.

(나) 상인과 승려가 이것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불교를 전했어요.

- ① (가) 후원 / (나) 교역로
- ② (가) 교역로 / (나) 후원
- ③ (가) 출가 / (나) 교역로
- ④ (가) 후원 / (나) 출가

답

정답과 해설

확인 01 정답과 해설

정답 (가) 브라만 (나) 브라만교 (다) 카스트제

브라만은 사람들의 신분 집단, 브라만교는 종교 전통, 카스트제는 신분 제도를 가리켜요. 서로 관련된 말이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브라만교는 브라만을 가장 높게 두는 카스트제의 신분 질서를 종교적으로 뒷받침했어요.

다시 읽기 Q02

확인 02 정답과 해설

정답 ②

먹고 남는 식량이 늘면 농사를 짓지 않는 장인과 상인도 식량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거나 사고파는 일에 힘쓸 수 있고, 남는 곡식을 다른 물건과 바꾸는 일도 활발해질 수 있었어요.

- ①이 아닌 이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남는 식량을 구해 생활할 수 있었어요. 장인과 상인이 모두 농사에만 힘써야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 ③이 아닌 이유 식량이나 재산이 늘어난다고 태어난 신분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경제적 힘이 커져도 브라만 중심의 신분 서열은 계속되었어요.
- ④이 아닌 이유 남는 곡식은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있었어요. 이런 교환은 장인과 상인의 활동과 교역의 발달을 뒷받침했어요.

다시 읽기 Q03 · Q04

확인 03 정답과 해설

정답 ④

정치·군사와 경제에서 두 집단의 힘은 커졌지만 브라만 중심의 신분 서열에서는 여전히 브라만 아래에 있었어요. 이런 차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출신보다 수행을 중시한 불교가 호응을 얻었어요.

- ①이 아닌 이유 크샤트리아는 두 번째, 바이샤는 세 번째 신분이므로 가장 낮은 신분이 아니었어요. 본문은 두 집단의 힘이 커져도 신분 서열이 그대로였다는 점을 설명해요. 불교의 핵심 가르침도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수행과 해탈이에요.
- ②이 아닌 이유 불교는 두 집단을 브라만보다 높은 신분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출신보다 수행과 행동을 중시했어요.
- ③이 아닌 이유 본문의 지지 이유는 커진 힘과 신분 서열 사이의 차이에 대한 불만이에요. 해탈도 브라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윤회에서 벗어나는 뜻이에요.

다시 읽기 Q02 · Q04 · Q06

확인 04 정답과 해설

정답 ①

불교는 태어난 신분보다 각자의 바른 행동과 수행, 깨달음을 중시했어요. 누구에게나 해탈의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 ②이 아닌 이유 불교는 브라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출신 신분에 관계없이 수행과 깨달음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 ③이 아닌 이유 높은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도 다시 태어남은 계속되므로 해탈이라고 할 수 없어요.
- ④이 아닌 이유 누구에게나 해탈의 길이 열려 있다는 가르침에는 각자의 수행과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뜻이 들어 있어요. 차별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해탈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05 · Q06 · Q08

확인 05 정답과 해설

정답 (가) 윤회 (나) 번뇌 (다) 해탈

윤회는 다시 태어남의 반복이에요. 불교에서는 욕심·미움·어리석음 같은 번뇌가 괴로움과 윤회를 이어지게 한다고 보았어요. 수행과 깨달음으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에요.

다시 읽기 Q06

확인 06 정답과 해설

정답 다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등의 괴로움도 되풀이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살 수 있다는 점만 보면 좋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괴로움도 계속 되풀이된다고 보아, 그 반복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목표로 삼았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표현이 달라도 ㉠ 다시 태어남이 반복된다는 점과 ㉡ 그때 괴로움도 되풀이된다는 점을 연결하면 맞아요. 괴로움의 예로 늙음·병·죽음·이별 가운데 일부를 써도 돼요. ‘다음 생에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려고’라고 쓰면 틀려요. 더 좋은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윤회에 포함돼요.

다시 읽기 Q06

확인 07 정답과 해설

정답 ③

중도는 쾌락과 극단적 고행이라는 두 극단을 피하는 바른 수행의 길이에요. 바른 말과 행동, 꾸준한 노력으로 괴로움의 원인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요.

- ①이 아닌 이유 중도는 두 의견의 중간을 무조건 고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 ②이 아닌 이유 몸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고행은 중도에서 피하려는 극단 가운데 하나예요.
- ④이 아닌 이유 불교는 욕심과 집착을 다스리며 바르게 노력하는 삶을 강조했어요.

다시 읽기 Q07

확인 08 정답과 해설

정답 ③

자비는 다른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괴로움을 덜어 주려는 마음이에요. 불교의 평등은 출신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행과 깨달음으로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과 연결돼요.

- ①이 아닌 이유 자비는 다른 존재의 괴로움을 덜려는 마음이에요. 평등도 모든 사람을 브라만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 ②이 아닌 이유 자비의 설명은 맞지만 평등의 설명은 틀려요. 누구나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과 사회의 결혼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 ④이 아닌 이유 평등의 설명은 맞지만 자비의 설명은 틀려요.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은 본문에서 배운 열반이에요.

다시 읽기 Q06 · Q08 · Q09

확인 09 정답과 해설

정답 ④

불교 수행 공동체에서는 출신 신분보다 같은 수행자라는 점을 중시했어요. 그러나 그 밖의 사회에는 여러 종교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불교를 믿어도 결혼과 직업에는 가족과 지역 집단의 관습이 영향을 주었어요.

- ①이 아닌 이유 불교는 브라만의 제사 권위와 출생에 따른 차별을 비판했어요.
- ②이 아닌 이유 본문은 불교 수행 공동체에서 출신 신분을 넘어 같은 수행자로 대하는 원칙을 설명해요.
- ③이 아닌 이유 불교가 결혼에 관한 신분 규칙을 사회 전체에서 없앴 것은 아니에요. 결혼과 직업 모두에 신분 관습이 계속 영향을 주었어요.

다시 읽기 Q09

확인 10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신자들이 돈이나 물자를 보태면 승려들이 머물 곳과 먹을 것 등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또 상인과 승려가 교역로를 따라 이동하며 설명하고 활동하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도 불교를 접했어요.

②이 아닌 이유 돈이나 물자를 보태는 (가)는 후원, 사람들이 오가는 길인 (나)는 교역로예요. 두 말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③이 아닌 이유 출가는 가정생활을 떠나 불교 수행과 종교 생활에 전념하는 것이예요. 신자들이 돈이나 물자를 보태는 (가)는 후원이에요.

④이 아닌 이유 출가는 수행을 위해 가정생활을 떠나는 것이예요. 상인과 승려가 이용한 이동 경로인 (나)는 교역로예요.

다시 읽기 Q10

대치동 재우쌤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